



## 미 증시, FOMC 및 메타 호재 등으로 강세 지속

### 미국 증시 리뷰

2 일(목) 미국 증시는 ECB 의 50bp 인상 및 3 월 추가 50 bp 인상 예고에도, 긴축 종료 임박 기대감 속 실적 및 자사주 매입 호재로 폭등한 메타(+23.3%)를 중심으로 아마존(+7.4%), 애플(+3.7%) 등 빅테크주들이 급등하면서 S&P500(+1.5%)과 나스닥(+3.3%)은 상승 마감(다우는 -0.1%로 약보합).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(+6.7%), 경기소비재(+3.1%), 기술(+2.8%) 등이 강세, 에너지(-2.5), 필수소비재(-0.9%), 헬스케어(-0.7%) 등이 약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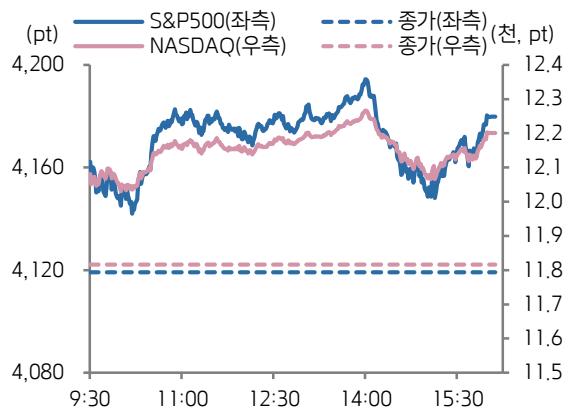
유럽중앙은행은(ECB)는 기준금리를 기존 2.0%에서 2.5%로 50bp 인상했으며, 인플레 압력을 고려해 3 월 회의에서도 50bp 인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. 양적긴축도 3 월부터 6 월까지 매달 평균 150 억 유로씩 진행할 계획이라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. 3 월 회의 이후에는 통화정책의 경로를 평가할 것이며, 금리 결정은 지표에 의존적일 것이라고 언급

라가르드 ECB 총재는 에너지 비용 문제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강하다면서 2% 물가로 되돌릴 수 있도록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 인상 경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. 다만, 공급난 완화, 안정적인 가스 공급 등으로 에너지 가격 하락 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빨리 둔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. 또한 3월 50bp 인상에 대해서 위원들 간 일반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밝힘.

영란은행(BOE)도 기준금리를 기존 3.5%에서 4.0%로 50bp 인상하면서,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정책금리를 유지. 9명의 위원 중 7명이 인상에 동의했으며, 대다수 위원은 고용시장 과열, 임금 상승 등을 근거로 금리인상을 주장한 반면, 소수 위원은 보다 제약적인 정책이 금리인하 시점을 앞당길 것이라고 주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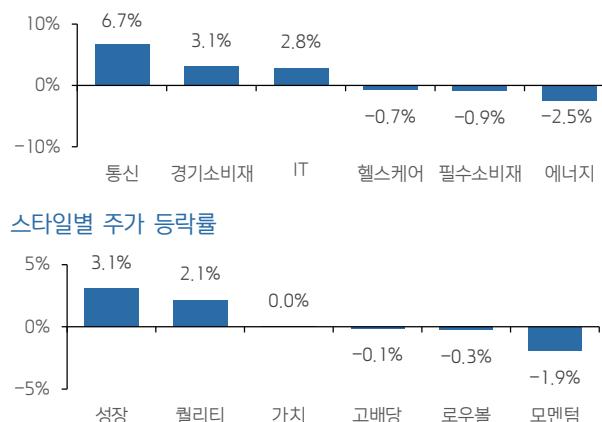
미국의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8.3 만건으로 전주(18.6 만건) 및 예상치(20.0 만건)을 하회. CG&C에서 발표한 1 월 미국기업들의 감원 계획은 10.2 만건으로 2020년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. 12 월 공장주문은 1.8%(MoM)으로 전월(-1.9%)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했으나, 예상치(2.3%)는 하회. .

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주요 지수					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코스피	2,468.88	+0.78%	USD/KRW	1,220.40	-0.93%
코스피 200	323.93	+0.85%	달러 지수	101.75	+0.52%
코스닥	764.62	+1.82%	EUR/USD	1.09	-0.72%
코스닥 150	1,067.55	+2.11%	USD/CNH	6.74	+0.28%
S&P500	4,179.76	+1.47%	USD/JPY	128.70	-0.22%
NASDAQ	12,200.82	+3.25%	채권시장		
다우	34,053.94	-0.11%	국고채 3년	3.195	-7.5bp
VIX	18.73	+4.81%	국고채 10년	3.220	-2.2bp
러셀 2000	2,001.22	+2.06%	미국 국채 2년	4.102	-0.4bp
필라. 반도체	3,141.84	+2.22%	미국 국채 10년	3.398	-1.8bp
다우 운송	15,640.70	+2.91%	미국 국채 30년	3.549	-1.7bp
유럽, ETFs			원자재 시장		
Eurostoxx50	4,241.12	+1.67%	WTI	75.85	-0.73%
MSCI 전세계 지수	654.32	+0.92%	브렌트유	82.1	-0.89%
MSCI DM 지수	2,809.94	+0.9%	금	1926.8	-0.82%
MSCI EM 지수	1,042.79	+1.09%	은	23.54	-0.29%
MSCI 한국 ETF	65.10	-0.02%	구리	408.65	-0.6%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



##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###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0.02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0.6% 하락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08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224.0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4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### 주요 체크 사항

1. 미국 경기 연착륙 기대감으로 인한 위험선호심리 지속 여부
2. 메타의 급등이 VR, XR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
3. 장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, 알파벳, 애플의 시간외 하락 여파

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ECB 와 BOE 통화정책회의에서는 예상대로 50bp 인상을 단행했고 ECB 는 BOE 와 연준에 비해 더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. 특히 라가르드 총재는 에너지 물가 뿐만 아니라 균원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, 이는 3 월 회의에서 50bp 인상 및 자산매입 프로그램 축소를 단행하는 근거. 시장에서는 3 월 50bp 인상을 이미 선반영하고 있었으나 변수는 물가가 될 것.

미국 CPI 는 작년 6 월 고점을 형성하고 하락 추세이지만 유로존은 10 월에 정점을 형성, 미국 대비 4 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하락 중. 그러나 반대로 유로존 균원 CPI 는 6 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불안 요인. 유럽 최대 경제 대국인 독일 경제성장을 역성장이나 수출(YOY -6.3%, 예상 -3.0%) 부진 등 유로존 경기를 둘러싼 불안요인은 여전히 존재. 지표 외 요인으로는 미국, 영국, 독일의 전차가 유럽 전선에 배치되고 있다는 보도는 2 월 말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1 주년을 앞두고 전쟁이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높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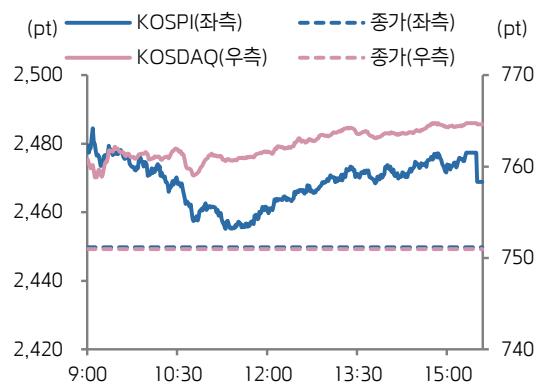
미국의 경우 앞서 발표된 ADP 취업자수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한 가운데(집계측은 극심한 눈보라, 흥수 등 날씨 요인에 의해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언급), CG&C 는 빅테크와 소매판매 부문의 1 월 감원 계획이 큰폭으로 증가했다고 보도. 그러나 미국 주간 신규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.3 만건(예상 20 만건, 전주 18.6 만건)을 대폭 하회하는 등 지표에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음. 고용지표 결과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은 금요일 밤에 발표될 1 월 고용보고서로 옮겨갈 것. 현재 컨센서스는 비농업 고용 19 만명(전월 22.3 만명), 실업률 3.6%(전월 3.6%), 시간당평균임금 YOY 4.3%(전월 4.6%)로 형성.

이를 감안했을 때 향후 증시 조정의 빌미는 유로존 물가, 미국 고용에서 나올 확률이 크다고 판단. 전일 통화정책회의 이후 주식 외 자산시장에서 독일 국채금리 하락, 파운드화, 유로화 역시 오히려 약세를 보임. 시장의 분위기는 이미 연내 금리인하를 예상하며 성장주에 베팅하는 것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랠리를 즐기되 상반기 중 위 지표를 주시할 필요가 있음.

2 일(목) 국내증시는 FOMC 이후 미국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급등, 원/달러 환율 하락, 외국인 순매수 등에 힘입어 상승(KOSPI +0.78%, KOSDAQ +1.82%).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가 동반 강세를 보이며 지수 상승을 주도했고, 메타의 시간외 급등, 삼성전자가 웰컴, 구글과 XR 협력을 강화한다는 보도로 관련주 강세 시현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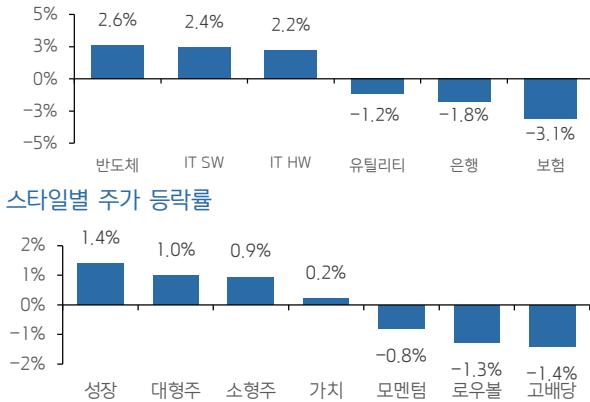
아마존, 알파벳, 애플은 장마감 후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소폭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고 시간외에서 3%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 요인이기 때문에 오늘 성장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 존재. 이번주 통화정책회의, 빅테크 실적 등 대형 이벤트들이 종료된 상황으로, 향후 지수가 급등하기보다는 낙폭과대 + 테마성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.

## KOSPI &amp; KOSDAQ 일중 차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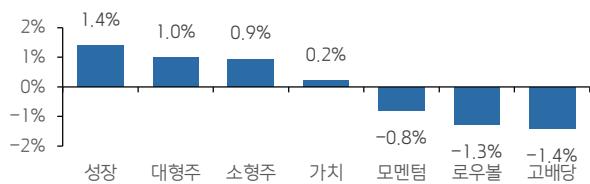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자료: Bloomberg, Quantwise, Fnguide, 키움증권

##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## 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 
고지사항

-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